

### 사설

## 스님들 노후대책 세워라

스님, 목사, 신부의 보험가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삼성생명의 발표다. 목사 다음으로 스님들의 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는 원래 무소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출가자들은 더더욱 무소유가 원칙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3의1발이면 족하다. 그 이상은 수행에 장애가 될 뿐이며, 출가정신을 저해한다고 가르친다.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물을 획득하면 교단에 헌납하여 공우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수행과 전법을 통해 중생들에게 봉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사회는 출가자들의 수행과 생활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적 사고가 교단에 파고들고 있으며, 출가자 개개인

의 재산 소유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승려 보험가입자의 증가 역시 이러한 사회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조계종적을 지닌 스님들은 조계종단의 현행제도 아래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도 반영되었다고 추정된다.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대해 그동안 숱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조계종단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늘 관심 밖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력으로 노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서구화를 지향하고 신화되던 하더라도 수행자의 삶은 수행 그 자체로 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수행과 전법 이외에 관심을 가진다면 출가생활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종단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왔다는 점을 뼈저리게 되새겨야 한다.

## 불교문화의 미래 위한 제언

10월은 '문화의 달'이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가 열리고 있다. 문화관광부 소속 기관이나 지방자치체에서 준비한 것만 전국적으로 946개에 이른다.

불교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행사도 이에 못지 않다. 산사 음악회는 이제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색다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자리를 잡았고, 그 밖에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불교문화산업단이 발족 기념으로 마련한 '아름다움과 깨달음'전은 단연 돋보일 뿐 아니라, 불교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 전시회에서 특별히 주목할 바는, 불단 장엄이나 불교 교리의 미술적 형상화에 초점을 두지 않고 순수

한 예술혼과 불교사상의 행복한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품작의 완성도나 작가의 수준도 최고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1급 예술의 당위성으로 섭취하는 기회를 맞은 셈이다.

이로써 우리는 불교 문화가 가야할 대로를 만난다. 양과 질의 조화, 향유자의 감식안을 끌어올리는 상향식 '눈높이 맞추기', 창작자에 대한 신바람 나는 자극, 이런 것들이 그 길의 구성 요소일 것이다.

'문화가 경쟁력'이라는 말은 이제 일상어가 되었다. 불교 또한 예외가 아니다. 다양한 문화적 스펙트럼으로 대중을 맞아들임과 동시에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 심부름 대중추수는 답보 아니면 퇴보를 부른다. 고급한 불교 문화를 일구지 않고는 불교의 미래를 말하기 어려운 때다.

# 진각종 정체성 재정립한다

### 종조탄생 100주년 기념 계기 교학·의식·수행법 점검

진각종이 아시아 4개국의 밀교 의식을 국내에 처음 선보이고, 이들 나라의 밀교사 특징을 살펴보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종단 정체성 확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진각종(총리원장 효암)은 종조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국제학술대회와 세계 밀교의식 시연법회를 잇따라 열었다.

이번에 열린 두 행사는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불교계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밀교종단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교학 의식 수행법 등을 종단 차원에서 총체적 재정립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진각종은 세계 밀교의식 시연법회와 관련,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밀교 전통 의식인 호마(護摩)불을 이용한 의식

및 관정(灌頂)불을 이용한 의식을 선보임으로써, 밀교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불교의 한 갈래임을 이해시키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국, 일본, 몽골, 티베트 등 4개국 30여명의 스님이 참가한 이번 시연법회에서는 18~19일 이틀 동안 진각종의 사자상승(師資相承)

이에 앞서 진각종은 17~18일 양일간 국내학자 14명 해외학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당사상과 밀교'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는 진각종 교육원장 해정 정사의 기초강연에 이어 △회당사상과 종교적 실천 △밀교의 성립과 만다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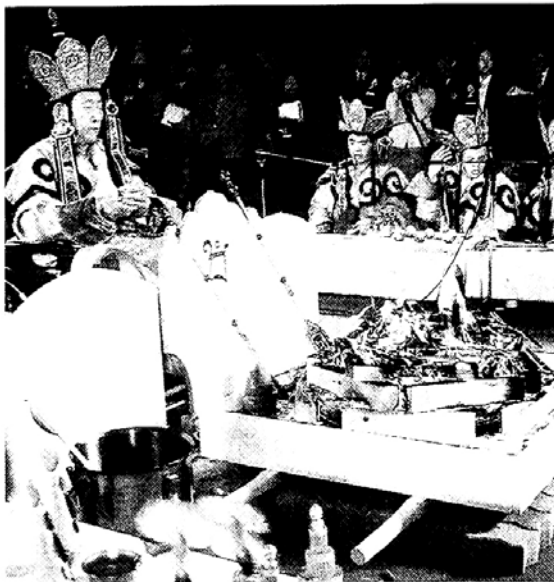
### 일본·몽골 등 밀교의식 한자리 특징 고찰

### '회당사상' 국제세미나서 宗學 보편성 확인

스승에서 제자로 법맥을 전수하는 의식 관정의식을 비롯해 일본 진언종과 몽골 간단사, 티베트 남마파 등의 식재호마의식(息災)재앙을 소멸시켜주는 의식, 일본 진언종의 증이호마의식(增益)이로 공을 더해 주는 의식 등이 각각 1시간씩 봉행됐다.

2개 분과별로 나눠 분과별 4~5개의 주제발표와 함께 논평이 각각 진행됐다.

위대대 김무생 교수는 '회당사상의 체계와 특징' 주제발표에서 "진각종의 기본 교학은 선택과 집중의 입장에서 수용됐기 때문에 시대를 뛰어넘어 적용될 수 있는



◇몽골 간단사 단장님 스님의 집전으로 식재호마의식이 봉행되고 있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존의 불교 신앙 양식과 의례의식 형태에 비취보면 이교처럼 보일 정도로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진각종의 보편성은 불교 교리와 신앙의 방향에 지극히 충실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네팔 트리브란데 나레쉬만 교수

의 비로자나불의 수인(手印)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일본 오오타나 대 유타카에 교수, 티베트 밀교의 수행과 만다라, 일본학술진흥회 장양카이쵸 연구원의 '몽골불교의 역사적 전개', 고야산대 나가무라 혼엔 교수의 일본의 진언밀교와 만다라 등이 발표됐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승려 특별분한신고 접수

### 조계종, 11월 한달동안

조계종이 11월1일부터 한 달간 승려 특별분한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1990년도 분한신고를 필한 승려 중 2000년 분한신고 미신고자로서, 분한신고서 및 신상

명세서, 호적등본 등을 갖추고 재적교구본사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특별분한신고는 지난 2000년 정기분한신고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않은 승려가 2000여명에 달해, 이에 대한 구제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문의 02)735-5862 한명우 기자

### 조계종 3급 승가고시산림 회합

### 합격자 290명 배출

지난 8일부터 해인사에서 시작된 조계종 제2회 3급 승가고시산림이 14일 회합하고 290명의 3급 승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했다.

조계종은 7일간 승가고시산림교육과정을 마치고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비구 135명, 비구니 155명 등 모두 290명에게 각각 중덕(中德)비구과 정덕(正德)비구니 법계를 수여했다.

이번 3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156명, 비구니 178명 등 총 334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비구 21명, 비구니 23명 등 44명이 서류심사 및 면접, 갈마, 승가고시 등에서 탈락했다. 특히 합격자 가운데 12명은 3급

승가고시의 마지막 관문인 눈술고사에서 1차 불합격 판정을 받아 재시험을 치른 끝에 합격하는 등 지난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3급 승가고시산림은 '설법론' '계율강의' 등의 강의와 참선 등으로 진행됐다. 한명우 기자

### 관음사 새주지 용주스님

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는 11일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용주스님(사진)을 신임 주지로 선출했다. 주지였던 증원스님은 회주로 추대됐다.

용주스님은 지호스님은 은사로 출가해 1969년 서울 천축사에서 사



미계를 수지하고, 1984년 부산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용주스님은 이후 천축사 무문관에서 정진을 계속해왔다. 한명우 기자

## 전립선염비대증

소변 줄기가 시원하게 나오며 천연 자연 생약이라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힘, 자신감이 생깁니다.

※ 40세 이후 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전립, 빈뇨, 야뇨, 소변후 물레값에서 해발될 수 있는 획기적인 천연자연생약

### 극제 전립선 비대증 자가 진단표

- ① 평소 소변을 볼때 다 보았는데도 소변이 남아 있는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② 평소 소변을 보고난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③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 줄기가 끊어져서 다시 힘주어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④ 평소 소변을 볼때 참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 ⑤ 평소 소변줄기가 약하거나 가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⑥ 평소 소변을 볼때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⑦ 평소 잠을 자다가(특히 야간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루 밤에 몇번 있습니까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

## 관절염

### 북한산 범썩약술

1년에 한번 소량의 생산만 되고 있는 범썩 약술은 북한에서도 고위 감부들만 복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탁월한 효과 때문에 구할수 없었기에 먹지 못했습니다. 1주일만 복용하셔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 효능

류마치스 관절염, 팔다리 마비, 여러가지 신경통, 소화기능장애 약해진 생리적 기능,소모성 질병에 씁니다.

중환자 부터 우선 순위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

## 과학 정보 36억년전 미생물 120살까지 장수

### 미국 NASA 우주국 건강센터 발견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90%가 산성체질!』

- 지구최초의 생명체이자 최초의 식품인 스피루리나는
- 36억년전 지구가 용암 분출로 이산화탄소와 탄산가스로 생명체 존재장장이 불가능 할때 태양과 광합성하여 이산화 탄소를 자양분으로 하여 스스로 성장하면서 지구에 산소를 만들어 생명의 성장을 도운 지구 최초의 생명체이자 최초의 식품이기도 한 신비의 천연물질이다.
- 세계 선진 20여개의 의과 대학 및 연구소에서 임상 실험한 결과 각종 성인병 불치병의 탁월한 효능을 입증하였습니다.
- 유엔 세계 보건기구(WHO)가 인정
- 필수 아미노산 소화 흡수율이 고기, 콩, 단백질의 5배 이상
- 하루 우유 5배의 칼슘 당근 10배의 베타카로틴 두부 8배의 단백질 시금치 50배의 철분을 한번에
- 우주 식품으로서의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미항공 우주국(NASA) 일본 과학 기술청 국제 항공 기술 연구소의 공동연구 및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등의 선진 국가에서도 활발히 진행 되고있다.
- 당뇨, 골다공증, 위산과다, 위궤양, 변비, 중금속에 의한 신장독 감속
- 고혈압 억제 및 혈압 정상화(칼륨다량함유) 수험생 영양 공급 및 강장작용
- 면역 활성화 향상(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함) 노인성 백내장 개선 고엽제 후유증 해독작용



※ 국내 유명 대학교 저명 교수들이 추천한 자료와 제품을 먼저 우송해 드립니다. ●문의처 : 055-247-0919 / 080-700-0881